

史上名人의 二十歲；

李穡先生의 元國儒學[下]

崔益翰

餘談은 그만두고 本題인 李穡先生의 二十歲를 敘述하겠다.

孤雲 崔致遠先生은 二十歲에 唐의 進士로서 □水□□가 되엇거니와 牧隱李穡先生은 二十歲에 元의 國子監生員이 되었다. 當時 李先生의 父 稼亭李穀은 元에 登科從仕하여 中□司 典□로잇는 同時에 文名이 또한 内外를 울렸는데 先生은 □□의 子로 國子監에 入學되였다. 國子監이란 지금 말로하면 卽 國立大學이니 王都內에 設□하여 □族子弟及其國中才俊을 □□하는 □高學校이며 生員은 卽 大學生徒이다.

先生은 二十歲로부터 二十三歲까지 四年동안 國子監에 在學하여 學問에 □□하고 當□碩學인 宇文于□, □□□, 吳伯□等を □□하여 얻은□ 만혔다. 先生의 □□한□□과 □□한 文辭는 이때에 그 基礎를 이미 樹立했던것이다. 그리고 後來 程朱性理學의 □□도 또한 이때에 벌써 그 方向을 定했을것이다.

國子監 在學四年에 先生의 學問□得이 얼마나 깊엇던 것은 그 後 父□을 □고 □□한 □年□□□士元年 □中上□一□여 如實히 이를 □明하는바이다. □□는 참으로 二十五歲少年의 名論大策이다. 첫재론 田制의 □□와 兼并의 □正을 極論하엿으며, 둘째론 倭寇防禦에 對한 □守, □□의 并行과 따라서 文武竝用 及其 武□作興의 必要를 強□하엿으며, 셋재론 學校興起와 人材培養의 方法을 主論하엿으며 넷재론 佛事의□□과 僧侶作弊의 防禦를 論□한 同時에 存儒抑佛의 時代的□□□ □曲히 表明하엿으니 이는 다 當時 政□□□에 對한 □□한 □案이며 明快한 政□이다. 一□한□는 누구나 勿論하고 그의 政論이 安詳適切하여 □誼의 治安□을 凌駕할만한 □時에 所□의 本源이 □□功□을 멀리□□한 것을 모다 認定치 아니치 못할 것이다.

先生의 姓은 韓山의 李요. 名은 穡이오. 字는 穎叔이오. 號는 牧隱이오. 諡는 文靖이다. 高麗忠□王十五年戊辰(1□28) 五月五日 □□□(今□□□)槐市里 外家에서 誕生하여 李太祖五年丙子(1396)□ □□□□에서 卒하엿으니 壽는

六十九歲였다.

그는 난지 二歲만에 外家로부터 故鄉인 韓山(今合川)에 돌아 왔었다. 어렸을 적부터 聰慧가 남달려 보면 문득 記誦했으며 十餘歲에 벌써 文章이 流暢했다한다.

我昔歲辛巳,
行年十又四.
立成百字詩,
僥倖取進士.

이는 先生의 後年追憶詩인데 十四歲의 少年이 成均試에서 百字韻의 長篇漢詩를 操卽成했단것은 그의 詩才早達에 누구나 놀래지 안홀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先生의 大志는 이에 滿足치 안코 遠大를 自期하여 學業에 더욱□□하였다.

그래 十四歲時엔□□□□산에 가서 讀書하고 十六歲時엔 前記李奎報先生이
예와 같이 崔冲先生의 □□인 九齋에 가서 □□□□卽『□□』의 □□에 參加하
야 詩文의 才□를發揮하고 十七歲時엔 三角, □□靑龍等山에 가서 讀書하고
十八歲時엔 舒州大菴山, 十九歲時엔 平州牧丹山等地에 □住하면서 讀書에 專
精하였다.

그리고 十九歲에 이르러 夫人□氏를 맞인 뒤에 當時 元에 留仕하고있는 父
公稼亨에게 觀親하러 發程하였으니 이는 先生의 北學에 잇어서 □□의 機會
였다. 當時 大元帝國의 首都인 北平은 東洋文化의 □□일뿐더러 萬國民物의
大 □□□이었다. 偏邦의 秀才로서 이러한 大邦의 首都 그리고 最高學府인
國子監에 入學하였으니 先生의 胸懷는 얼마나 快□했으며 志望은 얼마나 滿
足했을것인가. 古今書籍의 博覽, 各種學說의 接□, 多數英材의 交游 그 어느
것이 先生의 大成을 促進하기에 □助되지 안홀 것인가. 先生의 二十歲時는
先生의 一生에 잇어서 □時期的 □□를 갖었던 것이다.

그 後 先生의 政治, 學問兩生活에 對한 發身的 關門인 科第에 □次通過되
었다. 卽 本國의 文科와 征東行省鄉試에 모다 入格되었고 元의 會試와 殿試
에 次第入格되었다. 元의 文科에 올흔 後에 元朝에서『應奉翰林文字承事郎,
同知□□, 兼國史院編修官』이란 □□에 從仕하였다. 廿八勢時엔 元의 翰林經
歷□이 되었고, 五十八歲時엔 本國의 最高爵位인 門下侍中이 되었으니 先生
의 文名, 位望이 内外를 □□한 것은 이로서 □이 推定할수 잇는 것이다. 後
年先生이 □士□를 迎立할 內計를 품고 明에 使臣으로 갔을 때에 明太祖朱元
璋도 先生의 名聲을 일즉부터 들었던 바 □□을 極□히 하였다. 이 땅 人士

로서 文章과 名望이 當時支那人의 널리 敬□한배 되니로는 羅末의 崔孤雲과 麗末의 李牧隱이 또한 第一이 었던 것이다.